

2020년 1월 7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개별 기업 호재로 상승 전환 성공 알파벳 +2.67%, 아마존 +1.49% Vs. 반도체 업종 부진

미 증시 변화 요인: 미-이란 마찰 지속, FANG 기업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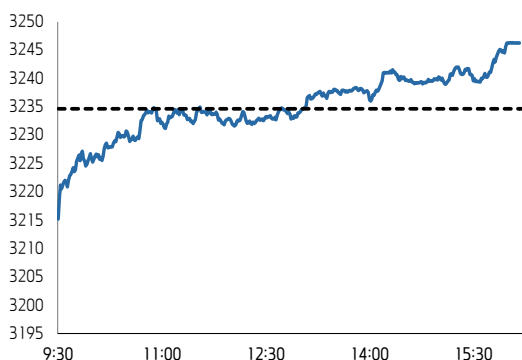
미 증시는 이란과의 마찰이 투자심리 위축을 불러와 하락 출발. 그러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 부각되며 일부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자 반등에 성공. 특히 서비스업 지표 개선에 소비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는 등 일시적인 안정을 찾는 경향. 물론 이란 이슈로 향후 심리 지표 부진 우려가 높아 반등이 제한. 시장 참여자들은 이란의 대응에 주목하며 관망세가 짙음(다우 +0.24%, 나스닥 +0.56%, S&P500 +0.35%, 러셀 2000 +0.14%)

미 주식시장은 이란과의 마찰이 극단적인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안정을 찾는 경향. 특히 미국 하원이 트럼프의 군사 행동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이번 주에 표결에 들어간다는 발표한 점, 트럼프 등 미국 정부부 관계자들도 이란과의 전면전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결과로 추정. 그러나 이란의 향후 대응이 구체화 되지 않아 아직은 관망세가 짙은 경향을 보임.

솔레이마니가 시아파 전체에서 핵심인물이기 때문에 인구의 90%가 시아파인 이란이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강경한 대응이 필수 적일 듯. 이러한 요인으로 미국과 이란의 마찰은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음. 이 경우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이 부각될 수 있으며, 향후 순환적 경기 개선세가 멈출 개연성도 높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의 반등도 제한.

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는 상승전환에 성공. 이는 이란과의 마찰이 완화되며 개선되었다기 보다는 알파벳(+2.67%) 등 일부 기업들이 호재성 재료를 기반으로 강세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이를 제외하면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금융, 물류와 더불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4% 하락. 반면, 리츠금융, 유틸리티, 세일오일 기업들은 반등. 시장 참여자들은 이란의 구체화된 행동의 수위를 기다리는 경향이 짙다고 볼 수 있음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상승률(%)	Close	D-1	주요국	상승률(%)	Close	D-1
KOSPI	-0.98	2,155.07	홍콩	0.98	28,226.19	-0.79	
KOSDAQ	-2.18	655.31	영국	2.18	7,575.34	-0.62	
DOW	+0.24	28,703.38	독일	0.24	13,126.99	-0.70	
NASDAQ	+0.56	9,071.47	프랑스	0.56	6,013.59	-0.51	
S&P 500	+0.35	3,246.28	스페인	0.35	9,600.90	-0.47	
상하이종합	-0.01	3,083.41	그리스	0.01	920.09	-1.14	
일본	-1.91	23,204.86	이탈리아	1.91	23,581.29	-0.5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04%

알파벳(+2.67%)은 새로운 CEO의 잠재력으로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가 높으며 투자의견과 목표주가가 상향 조정되자 강세를 보였다. 애플(+0.80%)은 5G폰의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하락 출발 했으나 대형 기술주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결국 강세로 전환 했다. 아마존(+1.49%)은 TV 스트리밍 플랫폼 사용자가 4천만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하자 강세를 보였다. 세일즈포스(+4.37%)는 RBC가 M&A에 의한 결과가 아닌 회사 자체적인 성과에 의해 강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향후 매출 성장을 이유로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자 급등했다. 의류업체인 노드스트롬(+2.76%)은 JP모건이 온라인 판매 급증 가능성이 높으며 투자의견을 상향조정하자 강세를 보였다.

EOG리소스(+4.07%), 옥시덴탈(+3.30%) 등 셰일오일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로 강세를 보였다. 반면, UPS(-0.45%) 등 물류회사, 델타항공(-0.69%) 등 항공주, GM(-1.32%) 등 자동차 업종은 하락했다. 마이크론(-1.77%), 스카이웍(-1.76%), AMAT(-2.16%) 등 반도체 관련주는 차익 매물과 일부 리서치 회사가 애플의 5G폰 출시 지연 가능성을 언급하자 하락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67%	대형 가치주 ETF(IVE)	+0.16%
에너지섹터 ETF(OIH)	+1.85%	중형 가치주 ETF(IWS)	+0.03%
소매업체 ETF(XRT)	+0.35%	소형 가치주 ETF(IWN)	+0.02%
금융섹터 ETF(XLF)	-0.06%	대형 성장주 ETF(VUG)	+0.64%
기술섹터 ETF(XLK)	+0.24%	중형 성장주 ETF(IWP)	+0.39%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31%	소형 성장주 ETF(IWO)	+0.36%
인터넷업체 ETF(FDN)	+1.39%	배당주 ETF(DVY)	-0.11%
리츠업체 ETF(XLRE)	+0.3%	신흥국 고배당 ETF(DEM)	-0.02%
주택건설업체 ETF(XHB)	+0.75%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31%
바이오섹터 ETF(IBB)	+0.64%	미국 국채 ETF(IEF)	-0.11%
헬스케어 ETF(XLV)	+0.62%	하이일드 ETF(JNK)	-0.06%
곡물 ETF(DBA)	+0.25%	물가연동채 ETF(TIP)	-0.25%
반도체 ETF(SMH)	-1.07%	Long/short ETF(BTAL)	-0.3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62.34	+0.78%	+1.62%	+7.69%
소재	373.19	-0.45%	-2.94%	+0.45%
산업재	699.04	-0.03%	+1.11%	+3.91%
경기소비재	994.13	+0.37%	+0.22%	+5.14%
필수소비재	642.07	+0.24%	-1.22%	+0.71%
헬스케어	1,187.27	+0.59%	-0.44%	+3.06%
금융	510.23	-0.06%	-0.32%	+2.89%
IT	1,626.38	+0.29%	+0.72%	+7.01%
커뮤니케이션	185.24	+1.22%	+1.14%	+3.86%
유틸리티	324.98	+0.25%	-0.56%	+1.61%
부동산	239.26	+0.08%	+0.06%	+0.7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반도체 관련주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0.36% MSCI 신흥 지수 ETF 는 0.24% 하락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이 434 계약 순매도 했으나 0.90pt 상승한 289.90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66.7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6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이란과의 마찰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자극할 개연성이 높다. 이는 한국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는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미국과 이란 모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 전면전이라는 최악의 경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대응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이며 향후 이란의 대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전까지는 차익실현 매물 소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가운데 한국 증시는 지난 3 일 관련 이슈 발생 후 고점대비 2.5% 가까이 조정을 보였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반등이 예상된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4% 하락하는 등 2019 년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매물이 유입된 점은 부담이다. 더불어 애플의 5G 폰이 2020 년 하반기가 아니라 2021 년 상반기에 나올 수 있다는 분석(Susquehanna)과 보도(마켓와치)도 반도체 관련주의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애플의 5G 폰 출시 지연은 "안테나 패키지 내 모듈을 제 3 자로부터 구매하는 대신에 인소싱 하기로 한 Apple 의 결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부진은 한국 증시 반등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보험권 등락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유로존 경제지표 개선

12 월 미국 서비스업 PMI 확정치는 전월(51.6)이나 잠정치(52.2) 보다 개선된 52.8 로 발표되었다. 예상보다 강한 신규 수주등이 유입되며 이런 확장세가 이어졌으며, 7 개월만에 처음으로 신규 수출 주문이 증가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12 월 독일 서비스업 PMI 는 잠정치(52.0) 보다 상향된 52.9 로 발표되었다.

1 월 유로존 섀틱스 투자자 신뢰지수는 전월(0.7)이나 예상(3.0)을 상회한 7.6 으로 발표되었다.

12 월 유로존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상승해 예상(mom +0.1%)를 상회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상승분 반납

국제유가는 이란 이슈가 부각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이란이 추모기간을 감안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미국이 대규모로 중동지역에 군대를 배치하고 있다는 점도 상승 요인이었다. 다만, 최악의 경우인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높아지며 상승세를 제한했다.

달러화는 유로화가 경제지표 개선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한편, 엔화는 장 초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으나, 이란과 미국의 전면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유입되자 달러 대비 약세로 전환 했다.

국채금리는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며 국제유가가 상승을 일부 반납하는 등 안정을 보이자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전면전 회피 발언, 이란의 추모 기간으로 인한 구체화된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유로존 경제지표가 개선된 점도 미 국채금리 상승 요인이었다.

금은 달러 약세 및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며 7 년내 최고치를 경신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23% 철근은 0.59%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3.27	+0.35	+2.51	Dollar Index	96.652	-0.19	-0.09
브렌트유	68.91	+0.45	+3.05	EUR/USD	1.1195	+0.30	-0.04
금	1,568.80	+1.06	+3.34	USD/JPY	108.41	+0.30	-0.43
은	18.179	+0.15	+1.32	GBP/USD	1.3166	+0.63	+0.40
알루미늄	1,833.00	+0.49	+0.44	USD/CHF	0.9683	-0.47	-0.11
전기동	6,138.50	+0.15	-1.21	AUD/USD	0.6941	-0.13	-0.76
아연	2,324.50	+0.80	+0.85	USD/CAD	1.2965	-0.28	-0.80
옥수수	384.75	-0.45	-1.35	USD/BRL	4.0652	+0.17	+0.44
밀	550.00	-0.81	-1.12	USD/CNH	6.97	+0.05	-0.21
대두	944.75	+0.35	+0.35	USD/KRW	1172.10	+0.43	+0.91
커피	122.15	-3.32	-7.81	USD/KRW NDF1M	1166.70	+0.12	+0.86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802	+1.39	-7.68	스페인	0.391	+0.90	-1.30
한국	1.557	-0.30	-8.20	포르투갈	0.364	+1.00	-0.80
일본	-0.020	-0.90	-0.90	그리스	1.391	-0.30	-3.50
독일	-0.287	-0.90	-3.10	이탈리아	1.359	+1.50	-1.00